

# ‘以’의 몇 가지 用法 考察\*

안재철\*\*

---

## ◁ 목 차 ▷

---

- I. 서론
  - II. ‘以’의 詞義와 轉成된 用法
    - 1. 以(이/로)의 本義와 詞義의 變遷
    - 2. 助動詞로 쓰이는 경우
    - 3. 名詞로 쓰이는 경우
    - 4. 名詞나 助動詞로 쓰이는 경우
    - 5. 介詞로 쓰이는 경우
  - III. 결론
- 

## I. 서론

漢語는 單語<sup>1)</sup>의 詞性이나 文章成分 등을 하나로 규정할 수 없다. 즉 한국어에 서는 目的語라고 하면 ‘~을(를)’에 해당하는 것만을 일컬으나, 漢語에서는 흔히 학 자에 따라서 補語로 분류할 수 있는 것까지도 포함할 수 있어서 目的語라는 말 대신 賓語라고 명명하기도 하며, 심지어 “她好看”과 같이 소위 영어의 ‘be 동사’와 같 은 ‘是’의 도움 없이도 述語가 될 수 있기 때문에 “漢語에는 형용사가 없고, 그것을 性狀動詞라고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漢語는 單語의 형태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동일한 형태이지만 문장 속에서 어 떤 構成成分으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詞性이 결정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

\* 이 논문은 2015학년도 제주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안재철 제주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1) 단어는 ‘詞’와 같은 말이지만, ‘詞’가 단독으로 쓰일 때는 생소하게 느껴지므로 ‘단어’라 고 통일하고, 詞義나 名詞 등과 같이 복음절사의 詞素로 쓰일 때는 ‘詞’를 쓰기로 한다.

도 문장의 統辭的構造를 잘 살펴야 한다.

本考에서 사용하는 轉成<sup>2)</sup>이라는 용어도, 영어나 한국어에서는 하나의 형태는 하나의 품사와 대응하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지만, 漢語에서는 단어의 형태가 동일하여도 문장성분이 다르면, 다른 품사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

흔히 品詞라는 것은, 문장에서 동일한 문장성분으로 쓰일 수 있는 단어들을 모아, 그것에 이름을 붙인 것으로, 그것들의 공통된 특징이 이름을 나타내면 名詞, 그것들이 어떤 것을 대신하면 代詞라고 부르는 것 등을 가리켜 語彙的意味<sup>3)</sup>라고 한다.

사실 漢語는 엄밀히 말하여 품사가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만, 통용될 수 있는 기준이 없으면, 문법을 기술할 수가 없기 때문에, 편의상 가장 많이 쓰이는 용법을 따라 그것을 本用의 품사로 결정하고, 그것을 벗어나면 품사가 轉成되었다고 기술한다.

문장은 단어들이 모여 서로 제약하고 제약받는데, 이런 제약관계는 대체로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는 系列關係로 동일한 문장구조에서 동일한 위치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들은 지칭하는 대상이나 표현하는 개념이 동일한 범주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둘째는 統合關係로 하나의 문장구조에서 앞뒤에 위치하는 단어들은 詞義<sup>4)</sup>가 서로 호응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漢語의 이와 같은 특징으로 말미암아, 한어를 해석하는 데에는 하나하나 단어의 詞義보다 그 단어들의 순서를 파악하여 그 단어의 文章成分을 파악하는 것이 해석을 바르게 하는 길이며, 따라서 本考에서는 혼동하기 쉬운 '以'의 몇 가지 용법을

2) 轉成은 轉類나 兼類라고도 하며, 단지 많이 쓰인다거나 本義라는 이유를 근거로 품사나 本用을 결정해야 하겠지만, 많이 쓰인다는 것은 물론이고, 本義조차도 꼭 그것이 本義라고 확정적으로 말하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때로는 매우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어서 학자에 따라 다르게 결정할 수도 있다.

3) 흔히 '~語'는 文章成分을 가르는 용어이므로, 語彙라는 용어보다 詞彙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지만, 사회적의미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본고는 그것에 관한 논문이 아니기 때문에 친숙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4) '詞義'는 '단어의 뜻'을 나타내고, '動詞性詞組'란 '동사의 성질을 띤 單語의 組合'을 나타내며, 介詞는 '전치사를 나타낸다.

文章成分을 고려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II. ‘以’의 詞義와 轉成된 用法

### 1. 以(𠄎/𠄎/𠄎)<sup>5)</sup>의 本義와 詞義의 變遷

‘以’의 本義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段玉裁(《說文解字注·券12 耳部》)의 설명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用也】 用者，可施行也。凡呂字皆此訓。【從反巳】 與巳篆形勢略相反也。巳主乎止。呂主乎行。故形相反。二字古有通用者。羊止切。一部。又按今字皆作以。由隸變加入於右也。【賈侍中說。己意巳實也。象形】 己各本作巳。今正。己者，我也。意者，志也。己意巳實，謂人意巳堅實見諸施行也。凡人意不實則不見諸施行。吾意巳堅實則或自行之。或用人行之。是以《春秋傳》曰。能左右之曰以。謂或力或又惟吾指搆也。賈與許無二義。云象形者，巳篆上實下虛。呂篆上虛下實。由虛而實，指事亦象形也。一說象己字之上而實其下。<sup>6)</sup>

【쓰다이다】 用이란 배풀어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다. 무릇 呂는 모두 이와 같이 풀이한다. 【巳7)가 뒤집어진 것을 따른다.】 巳의 소전체와 그 形勢가 대충相反된다. 【따라서】 巳는 그치는 것을 주관하고, 呂는 行하는 것을 주관한다. 그러므로 모양이 서로 相反된다. 두 글자는 옛날에는 通用되는 것이 있었다. [소리는] 羊止切이고, 一部에 속한다. 또 생각하기에 지금의 글자는 모두 以라고 쓴다. 예서로부터 變하여 오른 쪽에 人을 더하였다. 【賈侍中이 말하기를, “자기의 뜻이 이미 견실하다”고 했다. 象形이다.】 己는 各本이 巳라고 썼는데, 지금 고친다.

5) 王朝忠은 《漢字形義演釋字典》에서 甲骨文·金文·小篆의 글자체로 순서대로 (𠄎/𠄎/𠄎)을 제시하였다.

王朝忠 編著, 《漢字形義演釋字典》(成都市: 四川辭書出版社, 2006年 11月), 164쪽

6) 【】 안에 쓰인 것은 許慎의 《說文解字》 원문이다.

段玉裁 注, 許慎 撰, 《說文解字注·券14 巳部》(臺北: 東良印刷公司, 民國87年), 746쪽.

7) 이것(巳)의 甲骨文·金文·小篆의 字形은 순서대로 각각 (𠄎/𠄎/𠄎)이다.

己는 나이고, 意는 뜻이다. 자기의 뜻이 이미 견실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뜻이 이미 견실하면 못 시행이 드러나고, 사람들의 뜻이 견실하지 못하면 못 시행이 드러나지 않으며, 나의 뜻이 이미 堅實하면 스스로 行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부려 行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로써《春秋傳》에서 말하기를, “보좌할 수 있는 것을 以라고 한다. 力(左)나 又(右)라고 말한 것은 오직 내가 지향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賈(賈侍中)씨와 許(許慎)씨는 [서로] 다른 뜻[을 말한 것]이 아니다. 象形이라고 말한 것은, 巳의 소전은 위가 實이고 아래가 虛이며, 呂의 소전은 위가 虛이고 아래가 實이다. 虛와 實로 말미암은 것은, 指事나 象形이라는 것이다. 一說에는 己의 위를 그려서 아래를 實로 삼은 것이라고 한다.

상기의 설명에 따르면 ‘以’의 본의는 ‘쓰다’라고 하였지만, 학자들 중에는 段玉裁의 설명과 다른 설명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段玉裁는 《說文解字》의 “賈侍中說. 己, 意已實也. 象形” 아래에서 “己는 各本이 巳라고 썼는데, 지금 고친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湯可敬은 許慎의 원문(“賈侍中說. 巳, 意已實也. 象形”)은 “賈侍中說: 呂(以), 蕙苡의果實. 象果實的形狀.(賈侍中이 말하기를, 呂[以]는 울무의 열매이다. 열매의 형상을 그린 것이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sup>8)</sup>


이와 같이 ‘以’에 대한 설명은, 段玉裁의 설명도 字形을 바르게 판단한 것으로 단언할 수 없고, 본의가 許慎이 《說文解字》에서 설명한 바(“用也”)와 같이 ‘쓰다’라고 확정하기도 힘들다.<sup>9)</sup>


따라서 그것의 詞義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먼저 《古文字詁林 卷10》에 나열된 것 중에서 徐中舒가 설명한 것과 王朝忠이 《漢字形義演釋字典》에서 설명한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8) 湯可敬 撰, 《說文解字今釋(上·下)》(長沙: 岳麓書社, 2005年 10月), 2142쪽.

9) 本義를 어느 하나로 확정하여 말하기는 어렵다. 즉 글자의 本義를 설명하는 《正中形音義綜合大字典》과 같은 책에서도, 거의 모든 글자의 六書소속을 어느 하나로만 확정하지 못한 것은 그만큼 本義를 하나로 확정하여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예를 들면 《說文解字》의 설명(事也. 數始於一, 終於十. 從一從十. 孔子曰: “推十合一爲士.”)에 따르면 ‘士’의 本義를 ‘선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으나, 혹 ‘도끼의 모양을 그린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의 本義가 ‘도끼’인지, ‘도끼를 사용하는 武士’인지, 아니면 ‘도끼를 사용하는 남자’인지 어느 하나로 결정하여 말할 수 없는 것이다.

高樹藩, 《正中形音義綜合大字典》(臺北: 正中書局, 1981)



耜，異體甚多。小篆作耜，或作耜，𠂔，籀文作𠂔，或作耜，經傳作耜，廣雅作耜，從未，從木，從金，即表示三種意義：(1) 耜之形式與用途近於耒；(2) 木製之耜；(3) 金屬製之耜。從呂即耜之本字。呂爲用具，故古文借爲以字，以，用也。銅器以均作呂，當爲耜之象形字。甲骨文.<sup>10)</sup>

보습(耜)은 異體字가 매우 많다. 小篆은 耜이나 耜, 𠂔으로 쓰고, 籀文은 𠂔이나 耜로 쓰며, 《經傳》은 耜로, 《廣雅》는 耜으로 쓴다. [각각] 耒와 木, 金을 따랐으며, 세 가지 의미를 표시한 것이다. (1) 耜(보습)의 形式과 用途는 耒(쟁기)에 가깝다. (2) 木製로 만든 耜가 있고 (3) 金屬으로 제작된 耜가 있으니, 呂를 따른 것은 耜의 本字[라는 의미]이다. 呂는 用具이다. 그러므로 古文에서는 빌려서 이로 하였다. 以는 쓰는 것이다. 銅器의 以도 모두 呂라고 쓰므로, 마땅히 보습(耜)의 象形字가 된다. 甲骨文에서는 로 썼다.

甲骨文像古代農耕用的‘耜’，即呂。金文右邊加‘人’，表示人用‘耜’耕作。小篆由金文演變而來。邵瑛《群經正字》：‘呂，秦刻作以。’‘以’的本義指‘耕地農具’<sup>11)</sup>

甲骨文은 古代에 농사를 짓는데 사용하던 쟁기(耜)를 그린 것이다. 즉 呂이다. 金文에서는 우측에 人을 더하여, 사람이 쟁기를 써서 耕作하는 것을 표시하였다. 小篆은 金文에서 변하여 온 것이다. 邵瑛은 《群經正字》에서 “呂는 秦나라의 글자체로는 以이다.”라고 하여, 以의 本義는 ‘땅을 일구는 농기구’라고 하였다.

위의 설명들은 ‘以’의 本義를 ‘경작하는데 사용하는 농기구’를 말한다고 하였다.

특히 王朝忠은 《漢字形義演釋字典》에서 갑골문, 금문, 소전의 글자체로 각각   등을 제시함으로써, 金文이후에는 농기구 뿐 만아니라 사람까지 그려서, 사람이 농기구를 사용하는 것을 그렸다고 하였다.

종합해 보건데, 본래는 ‘농기구’라는 명사이며, 《說文解字》에서 “사용하다(用也)”라고 한 것은 농경생활의 중요한 도구인 농기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인신<sup>12)</sup>된 것으로 보인다.

10) 古文字詁林編纂委員會, 《古文字詁林·卷10》(上海: 上海教育出版社, 1999년 12월), 1135쪽.

11) 王朝忠 編著, 《漢字形義演釋字典》(成都市: 四川辭書出版社, 2006年 11月), 164쪽.

12) ‘以’가 ‘用’과 소리가 유사하고, 뜻도 ‘농기구’와 ‘쓰다’가 유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유사한 뜻으로 訓하되, 소리가 유사한 글자를 빌려 쓴 것을 有義의假借라고 하기도 하지만, 마치 ‘來’의 本義가 ‘보리’인데 ‘오다’라는 뜻으로 빌려 쓴 것은 ‘보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스러운 곡식’이기 때문이라고 의미를 관련시켜 그것을 有義의假借라고 하

《說文解字》의 설명 방식 중에는 聲訓法이 있는데, 성훈법이란 “東, 動也.”, “又, 手也.”, “葬, 藏也.”<sup>13)</sup>와 같이, 음이 같거나 유사한 글자를 가지고 설명하는 방식을 말한다.

즉 “目(以), 用也.”라는 설명방식은 아래와 같이 ‘以’와 ‘用’이 서로 聲母가 같아 雙聲관계에 있기 때문에 聲訓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說文解字》에서는 비록 ‘用也’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用也’는 단지 聲訓한 것으로, 그것이 본의를 밝힌 것이라기보다는 소리로 뜻을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위의 설명을 따라, ‘쓰는데 사용하는 도구’인 ‘농기구’가 본의라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두 글자의 성훈관계를 밝히면 아래와 같다.

用, [余頌](通合三去用以), 東, /\*ɰiwɔŋ/ > /jɰiwɔŋ/ (/ \*djɰŋ/ > /Ojuɔŋ/)<sup>14)</sup>  
以, [羊己](止開三上止以), 之, /\*ɰia/ > /jiə/ (/ \*djəŋ/ > /Oi/)

살펴본 바와 같이 ‘以’와 ‘用’의 성모는 완전히 같아 서로 쌍성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기의 본의로부터 여러 가지 引伸과 假借의 과정을 거쳐 오면서 몇 가지 뜻을 취하게 되는데, 王力の 《王力古漢語字典》에 나타난 ‘以’의 詞義를 살펴보면 아래와

는 것과 같이 매우 억지스러운 점이 있어서, 본고에서는 인신으로 간주한다.

\* ‘以’와 ‘用’의 소리가 유사한 것은 아래에서 기술한다.

13) 《說文解字》에 각각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 있다.

\* 東, 動也. 從木. 官溥說: 從日在木中. 凡東之屬皆從東. 得紅切

\* 又, 手也. 象形. 三指者, 手之<sup>ㄩ</sup>多略不過三也. 凡又之屬皆從又. 于救切

\* 葬, 藏也. 從死在艸中; 一其中, 所以薦之. 《易》曰: “古之葬者, 厚衣之以薪.” 則浪切

14) ① 用, [余頌](通合三去用以), 東, /\*ɰiwɔŋ/ > /jɰiwɔŋ/ (/ \*djɰŋ/ > /Ojuɔŋ/)은 ‘표제자, [廣韻의 反切] (攝, 開合, 等, 聲調, 韻母, 聲母), 上古의 韻部, 王力の 音素기호 (董同龢의 音素기호)’ 순으로 기록한다.

② /\*ɰiwɔŋ/ > /jɰiwɔŋ/에서 ‘\*’은 上古音을 나타내며, ‘)’의 좌우는 각각 ‘中古音’ 上古音’을 나타내고, ‘/’은 음소기호를 나타낸다. (음성기호를 [ ]으로 표시하는 것과는 다르다.)

③ 音素기호에서 王力の 것은 ‘王力 著, 《同源字典》(臺北: 文史哲出版社, 民國72年)’를 따르고, 董同龢의 것은 ‘董同龢 著, 《漢語音韻學》(臺北: 文史哲出版社, 民國94年 16版)’의 것을 따른다.

같다.

(1) 動詞. 用. (2) 名詞. 緣故 (3) 介詞 ① 拿, 把, 用 ② 表示事情發生的時間  
③ 表示時間·地點·數量的界限 (4) 以爲, 認爲. (5) 通‘已’ 15)

(1) 動詞. 쓰다(用). (2) 名詞. 緣故 (3) 介詞 ① ...으로써(拿, 把, 用) ② 일이  
발생한 시간을 나타낸다. ③ 時間·地點·數量的 한계를 표시한다. (4) 여기다(以  
爲, 認爲). (5) ‘已’와 통한다.

또 王朝忠의 《漢字形義演釋字典》에 나타난 詞義의 變遷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  
다.

(1) 本義消亡. 借爲‘用’·‘使用’. 動詞 (2) 由‘用’引伸爲‘使’. 動詞 (3) 由‘使’引伸爲  
‘憑借’. 動詞 (4) 由‘用’又引伸爲‘做’·‘爲’. 動詞 (5) 由‘爲’引伸爲‘及’·‘連及’. 動詞  
(6) 由‘連及’引伸爲‘率領’·‘帶領’. 動詞 (7) 由‘用’又引伸爲‘認爲’. 動詞 (8) 由‘認爲’  
引伸爲‘緣由’. 名詞 (9) 由‘緣由’引伸爲‘有’. 動詞 (10) 由‘認爲’又引伸爲‘可以’. 動詞  
(11) 借作代詞, 相當于‘其’·‘此’·‘何’. (12) 虛化作副詞·介詞·助詞. 相當于‘太’·  
‘更加’·‘又’·‘用’·‘拿’·‘依’·‘在’·‘從’·‘要數’·‘和’·‘因此’·‘如果’等. 現作介詞  
‘用’·‘拿’·‘依’·‘要數’的; 助詞‘以’和‘上’·‘下’·‘東’·‘西’·‘南’·‘北’·‘前’·‘後’·  
‘內’·‘外’等位置詞連用, 表示時間·方位·數量的界線. 16)

(1) 本義는 소실되고, ‘用[쓰다]’과 ‘使用’으로 빌려 쓴다. 動詞 (2) ‘用’로부터 引  
伸되어 ‘使[시키다]’가 되었다. 動詞 (3) ‘使’로부터 引伸爲되어 ‘憑借[빙자하다]’가  
되었다. 動詞 (4) ‘用’로부터 다시 引伸되어 ‘做[하다]’·‘爲’가 되었다. 動詞 (5) ‘爲’  
로부터 引伸되어 ‘及[미치다]’·‘連及[연루되다]’가 되었다. 動詞 (6) ‘連及’에서부  
터 引伸되어 ‘率領[인솔하다]’·‘帶領’가 되었다. 動詞 (7) ‘用’으로부터 또 引伸되  
어 ‘認爲[여기다]’가 되었다. 動詞 (8) ‘認爲’로부터 引伸되어 ‘緣由’가 되었다. 名  
詞 (9) ‘緣由’로부터 引伸되어 ‘有’가 되었다. 動詞 (10) ‘認爲’로부터 또 引伸되어 ‘可  
以’가 되었다. [助]動詞 (11) 代詞로 빌려 쓴다. ‘其’·‘此’·‘何’에 해당한다. (12) 虛  
化되어 副詞·介詞·助詞 등이 되었다. ‘太’·‘更加’·‘又’와 ‘用’·‘拿’·‘依’·‘在’·  
‘從’·‘要數’, 그리고 ‘和’·‘因此’·‘如果’ 등이 된다. 지금 介詞 ‘用’·‘拿’·‘依’·‘要  
數’가 되고, 助詞 ‘以’와 ‘上’·‘下’·‘東’·‘西’·‘南’·‘北’·‘前’·‘後’·‘內’·‘外’ 등의  
位置詞와 連用하여 時間·方位·數量的 境界가 된다.

15) 王力 主編, 《王力古漢語字典》(北京: 中華書局, 2000년 6월), 16쪽.

16) 王朝忠 編著, 《漢字形義演釋字典》(成都市: 四川辭書出版社, 2006년 11월), 164~  
165쪽.

‘以’의 詞義를 살펴보면 本義라고 제시한 ‘농기구’라는 뜻은 消失되고 없으며, 일반적으로 動詞<sup>17)</sup>나 名詞 그리고 副詞, 介詞, 助詞 등으로 쓰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에서는 특히 조동사나 명사로 사용되는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2. 助動詞로 쓰이는 경우

먼저 조동사로 해석되는 것을 살펴본다.

① 舞則選兮, 射則貫兮. 四矢反兮, 以禦亂兮. 《詩經·齊風·猗嗟》

춤 추면 사뿐사뿐하고, 활을 쏘면 과녁을 뚫고, 네 번이나 정곡을 맞추는 것이 거듭되니, 이 세상 어지러움을 막을 수 있으리라.

② 陳代曰, 不見諸侯, 宜若小然. 今一見之, 大則以王, 小則以霸. …《孟子·滕文公下》

진대가 말하길, “제후를 보지 않는 것은 의당 작은 [절개를 지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한번 보신다면, [그릇이] 크면 왕업을 이룰 수 있고, 작더라도 霸者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③ 他們手段之卑鄙, 到了無以復加的地步.<sup>18)</sup>

그들 수단이 비열한 것은 더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상기 예문 ①과 ②는 ‘以’가 동사 앞에 쓰였으므로 조동사로 판단할 수 있으며, 또한 그것들을 ‘以之’에서 介詞目的語 ‘之’가 생략된 것으로 보고 ‘以’를 介詞로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 예문 ③의 경우는, ‘無以復加的’가 ‘地步’의 限定語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만약 ‘以’가 명사라면 ‘다시 더할 까닭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해석되어야 하고, ‘以’가 개사라면 ‘[그것으로] 다시 더하는 것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해석되어야 하므로, 의미가 옳지 않아 반드시 조동사로 판단되어야 한다.

17) 王朝忠의 《漢字形義演釋字典》에서 10번의 설명은 動詞라고 했지만, 왕씨는 아마도 助動詞를 동사의 一種으로 본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곳에서 말하는 동사에는 조동사가 포함된다.

18) 高大民族文化研究所 中國語大辭典編纂室, 《中漢辭典》(서울: 高大民族文化研究所, 1989년) 2484쪽.



아래에서는 ‘有’와 ‘以’가 연속되어 쓰이지만, ‘有’와 ‘以’가 각각 분리되어 하나씩의 單音節詞로 해석되어야 하는 예를 살펴보겠다.

惟有以正大的態度，才能合天地之法則.<sup>19)</sup>

오직 정대하게 여길 수 있는 태도가 있어야, 비로소 세상의 법칙에 부합할 수 있다.

‘惟有以正大的態度’에서 ‘有’의 목적어는 ‘態度’이고, ‘以正大的’는 ‘態度’의 한정어가 되며, 한정어[以正大的] 내에서 ‘以’는 술어[正大]의 앞에 쓰이고 있으므로 명사가 될 수 없고, 의미를 살펴보면 介詞目的語가 생략된 介詞로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以’는 술어 앞에 쓰이는 조동사로 간주하여야 하며, 단지 ‘正大’는 의미상 동사가 아닌 형용사이므로, 使動이나 意動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로 전성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여기서는 意動動詞로 보고 “오직 정대하게 여길 수 있는 태도가 있어야, ...”라고 해석되는 것이다.

### 3. 名詞로 쓰이는 경우

다음은 반드시 명사로 해석되는 것을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1) ‘以’의 뒤에 다른 단어가 없는 경우

여기에서 나열하는 예는 ‘以’가 동사 뒤에 쓰이지만 ‘以’의 뒤에는 다른 단어가 없어서 ‘以’가 마땅히 명사가 되어야 하는 경우이다.

‘以’가 介詞로 쓰일 때는 그것의 뒤에 介詞目的語를 취하여 介詞性詞組<sup>20)</sup>를 이

19) <http://dic.daum.net/word/view.do?wordid=ckw000151952&q=%E6%9C%89%E4%BB%> (검색일자: 2014년 9월 29일)

20) 詞組란 詞(단어)와 詞(단어)가 문장에서 하나의 문장성분으로 작용하는 것을 말한다. 動詞性詞組란 동사의 성격을 지닌 詞(단어)의 組合이라는 의미이며, 흔히 사용하는 動詞句와 같은 말이다. 本考에서는 ‘句’라는 말은 주어와 술어를 갖추었으나 문장을 이루지 못하는 複文의 分句와 같은 것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그것과 구분하기 위해 詞組라는 말을 사용하기로 한다. 介詞性詞組라는 말은 흔히 介詞句나 介詞結構라는 용어를 쓰지만, 本考는 詞組라는 용어를 쓰기로 하였기 때문에 介詞性詞組라고 하였다.

름으로써 動詞述語 뒤에서 補語가 되지만, '以'의 뒤에 아무 것도 없으면, 그것이 곧 동사의 목적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명사라고 해야 하는 것이다.

① 何其久也, 必有以也. 《詩經·邶風·旄丘》

어쩌면 그렇게 오래 걸리는가? 반드시 까닭이 있으리라.

② 夫天地者, 萬物之逆旅也, 光陰者, 百代之過客也. 而浮生若夢, 爲歡幾何? 古人秉燭夜遊, 良有以也. 《李白 春夜宴桃李園序》

천지는 만물이 쉬어가는 객점이요, 세월은 百代를 지나는 손님이라. 뜬구름 같은 인생은 꿈결 같거늘, 마음껏 즐긴다 한들 얼마나 될까! 옛 사람이 들불 들고 밤새 노닌 것은 진실로 까닭이 있었음이라.

③ 或隱或見, 時行時止, 順冬夏而無乖, 應昏明而有以. 唐 白居易《黑龍飲渭賦》

혹은 숨고 혹은 드러나고, 때로는 行하고 때로는 그치며, 겨울과 여름을 따라 어긋남이 없고, 어둠과 밝음에 應하여는 규율이 있다.

④ 衆人皆有以, 而我獨頑且鄙. 《道德經·20장》<sup>21)</sup>

사람들이 모두 [행한] 이유가 있는데, 나만 홀로 어리석고 촌스럽네.

⑤ 鹿之大者爲塵, 群鹿隨之, 皆視塵尾<sup>22)</sup>所轉爲準, 古之談者揮之, 良有以也. 《緇門警訓·禪文·傳禪觀法の注》<sup>23)</sup>

사슴 가운데 대장을 塵라 하는데 사슴 무리들이 그를 따르되, 모두 塵尾가 움직이는 바를 보고 [행동의] 기준으로 삼으니, 예전에 담론하던 자들이 그것을 휘두르는 데는 진실로 까닭이 있다.

⑥ 《楞嚴經》云, 云何賊人, 假我衣服, 裨販<sup>24)</sup>如來, 造種種業. 若不以戒攝心<sup>25)</sup>者, 縱饒解齊佛祖, 未免裨販如來 造種種業 況平平之人 清涼國師以十願律身者 良有以也. 《緇門警訓·示衆·懶庵樞和尚法語》

《楞嚴經》에 이르되 “어찌하여 도적이 나의 옷에 假藉하여 如來를 싸게 팔아 각

21) “... 而我獨頑且鄙”은 “... 而我獨頑似似鄙.”라고 쓴 판본이 있는데, ‘似’는 ‘以’와 通假字가 되어 ‘以’의 여러 가지 뜻과 통하므로(朱駿聲, 《說文通訓定聲·頤部》: 似, 段借爲以), 순접관계를 나타내는 ‘而’와 같다고 할 수 있다.

22) 塵尾는 拂子·拂塵·僧塵·玉塵·談塵라고도 한다.

23) 本考는 필자가 《緇門警訓》을 번역하면서, 기존의 번역 중에서 ‘以’의 용법을 잘못 이해하여 오역한 것이 많아, 그것을 수정하고자 쓴 것이기 때문에 佛典에서 인용한 예문이 많다.

24) 裨販: 小販也. 자본과 이익이 微微한 商販이나 판매한 물건을 가리킨다.

25) 攝心: ① 마음에서 잘 알아차리는 것. 攝心不亂 ② 좌선을 통해 정신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시켜 산란되지 않는 것.

種의 業을 짓는고?” 하시니, 만약 戒로써 마음을 거두지 못하면, 설령 이해력이 부처님이나 조사들과 같더라도, 如來를 싸게 팔아 각종 業을 짓는 것을 면치 못할 것이거든, 하물며 보통의 평범한 사람임에랴! 淸涼國師가 十願으로써 몸을 단속한 것은, 진실로 까닭이 있느니라.

⑦ 宋人執而問其以. 《列子·周穆王》

송나라 사람이 [그를] 붙잡고 그 까닭을 물었다.

위의 예문들은 모두 ‘以’의 뒤에 어떤 단어도 출현하지 않고, 동사 ‘有’나 동사 ‘問’의 뒤에 있어서 그것의 목적어로 쓰인다.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名詞이거나 代詞이므로 명사로 판단할 수 있다.

특히 ⑦의 경우는 ‘以’의 앞에 한정어인 ‘其’가 있으므로, 더욱 명확히 명사라고 할 것이다.

아래의 예는 ‘以’의 뒤에 다른 단어가 있어서 엄격한 의미에서 여기에 나열할 수 있는 예는 아니지만, 그 예가 많지 않고, 명사적용법으로 쓰이므로 이곳에 부기한다.

⑧ 乃至從上祖師遺編山積 一話一言 固無非綱領 奈何世降聖遠 情僞日滋 心意識 有以蠱蝕之 則視綱領 爲目縷者 盖摠摠矣 《禪要》<sup>26)</sup>

심지어는(한 발 더 나아가) 옛날부터 祖師스님들이 남기신 책이 山積하며, [그 중의] 한 마디 한 마디가, 진실로 綱領이 아닌 것이 없는데, 세상은 [말세에] 떨어지고 성인[의 시절]은 멀며, 人情의 거짓된 것은 날로 번성하니, 心意識은 벌레가 [그것을] 좀 먹는 까닭이 있어서, 곧 버리와 옷깃을 보고 그물코와 실오라기로 여기는 사람이, 대체로 많아진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⑧은 ‘蠱蝕之’가 ‘以’의 뒤에서 그것을 한정하는 것으로 ‘以’는 마땅히 명사가 되어 ‘有’의 목적어가 되는 것이다.

26) ‘奈何’가 ‘...을 어떻게 할까?’라고 해석될 때, 목적어는 ‘奈+목적어+何’와 같은 형식을 취하여 ‘如人非木石何.(사람이 木石이 아닌 것을 어찌할까?)’와 같이, 목적어를 ‘如’와 ‘何’의 사이에 두기 때문에, 이것은 마땅히 ‘奈何世降聖遠 情僞日滋 心意識 有以蠱蝕之 則視綱領 爲目縷者 盖摠摠矣: 奈何世降聖遠 情僞日滋 心意識 有以蠱蝕之 則視綱領 爲目縷者 盖摠摠何’라고 써야 옳을 것이나 너무 길어 혼동할 것 같아 순서를 바꾼 것으로 보고 해석한다.

이러한 예는 ‘有無’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의 뒤에 쓰인 ‘以’는, ‘以’를 꾸미는 말이 ‘以’의 뒤에 위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예라고 할 것이다.

## 2) ‘以’의 뒤에 動詞나 動詞性詞組가 있는 경우

아래에서는 ‘以’의 뒤에 動詞나 動詞性詞組가 출현하는 경우를 살펴보겠다.

① 彼西洋者, 無法與法並用而皆有以勝我者也. 《嚴復文集·原強》

저 西洋놈들은 함께 본받거나 함께 쓸 방법은 없으나, 모두가 나를 이긴 이유는 있다.

② 昔者 迦葉如來授我釋迦本師, 《智論》所謂十三條羸布僧伽梨 是也. 洎至垂滅, 遣飲光尊者, 持之於鷄足山, 以待彌勒, 有以見佛佛之所尊也. 祖師西至, 六代相付, 表嗣法之有自, 此又祖祖之所尚也. 《緇門警訓·書狀·大智照律師送衣鉢與圓照本禪師書》

옛적에 가섭을 통하여 여래께서 우리에게 釋迦本師의 의발을 건네주셨으니, 《智論》의 소위 13條의 거친 베로 된 僧伽梨가 이것이라. 滅을 드리움(入滅하실 때)에 임박하여, 음광존자(가섭존자)로 하여금 계족산에서 그것을 가지고 彌勒을 기다리게 하시니, 각각의 모든 부처님들이 존중한 비를 드러낸 까닭이 있으며, 조사께서 서쪽에서 이르러, 6대가 서로에게 건네주신 것은, 법을 이어가는 것에 [그 비릇한] 근원이 있음을 드러내신 것이니, 이것은 또한 각각의 모든 조사님들이 숭상하는 바이니라.

③ 殺人以挺與刀, 有以異乎? 《孟子·梁惠王(上)》

살인을 하는데 몽둥이와 칼이 다른 이유가 있는가?

④ 有以教. 27)

가르치는 방법이 있다.

⑤ 有以善處. 28)

바르게 대처할 방법이 있다.

⑥ 若不相奪全盡 無以舉體全收故 極違 方極順也 龍樹無着等 就極順門故 相成 清辯護法等 據極違門故 相破 違順自在 成破無碍 卽於諸法 無不和會耳《禪源諸詮集都序》

27) <http://dic.daum.net/search.do?q=%E6%9C%89%E4%BB%A5%E6%95%99&dic=ch> (검색일자: 2014년 9월29일)

28) 高大民族文化研究所 中國語大辭典編纂室, 《中漢辭典》(서울: 高大民族文化研究所, 1989년) 2930쪽.

만약 서로(의 근거)를 빼앗고(부정하고)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면, 전부를 완전히 [긍정하여] 받아들일 이유가 없기 때문에, 매우 어긋나야지 비로소 매우 따르는 것이니, 龍樹나 無着 등이 극히 따르는 門에 나아갔기 때문에, 서로를 완성시킨 것이요, 淸辯이나 護法 등은 극히 어기는 門에 의지하였기 때문에, 서로를 打破하는 것이니, 어김과 따름이 自在롭고, 완성시키는 것과 打破하는 것에 걸림이 없어서, 곧 모든 법에서, 和會하지 않음이 없었을 뿐이니라.

여기에 나열한 예문들은 모두 ‘以’가 동사 ‘有’나 ‘無’의 뒤에 위치하고, ‘以’의 뒤에는 동사나 동사성사조인 ‘勝我者’, ‘見佛佛之所尊’, ‘異’, ‘教’, ‘善處’, ‘舉體全收’ 등이 있어서, “有無를 나타내는 동사의 목적어를 한정하는 말<sup>29)</sup>은, 그 목적어의 뒤에 위치한다.”는 규칙에 따라 ‘以’를 명사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다.

단지 ‘以’가 동사나 동사성사조 앞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것이 동사 앞에서 조동사로 쓰이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명사나 조동사가 모두 가능한 경우’에서 살펴보겠지만, ‘以’의 앞에 ‘無’가 올 때는 조동사로 해석될 수도 있겠지만, 앞에 ‘有’가 올 때는 조동사로 해석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조동사를 부정하는 방법으로 조동사 앞에 ‘不’나 ‘無’ 등의 否定副詞를 붙여 쓰기는 하지만, 긍정하는 것에 다시 ‘有’ 등을 붙여 쓰지는 않기 때문에, ③④⑤는 각각 ‘다를 수 있는가?’, ‘가르칠 수 있다’, ‘바르게 대처할 수 있다’ 등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sup>30)</sup>

또한 ⑥에서 ‘以’는 위문장을 대신하여 어떤 상황을 나타내는 副詞語가 되어 ‘이와 같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sup>31)</sup>, 王朝忠의 《漢字形義演釋字典》에 나타난 詞義의 변천에서 부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라는 詞義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論議에서 제외한다.

29) 詞(단어)나 詞組를 포함하므로 단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말이라고 표현하였다.

30) 或者는 ④⑤를 각각 ‘가르칠 수 있다’와 ‘바로 대처할 수 있다. 타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잘못 해석하기도 하여 지금 바로 잡는다.

\* <http://dic.daum.net/word/view.do?wordid=ckw000151952&q=%E6%9C%89%E4%BB%> (검색일자: 2014년 5월 12일)

31) 叔孫武叔毀仲尼, 子貢曰: “無以爲也! 仲尼不可毀也.” 《論語》(叔孫과 武叔이 仲尼를 비방하니, 子貢이 “이와 같이 하지 말라! 仲尼는 비방할 수 없다”)에서 ‘以’의 용법이 ‘이와 같이’라는 부사라고 할 수 있다.

### 3) 助動詞와 혼동되지만 名詞로만 쓰이는 경우

아래에서는 조동사나 명사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으나, 동일한 문장 내에서 짝하고 있는 문장을 통하여 반드시 명사로 해석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살펴보고자 한다.

《高僧傳》云 唱導所貴有四 非聲則無以警衆, 非才則無以適時, 非辯則無言可, 非博則語無所據」《事鈔》云 博學爲濟貧, 謂濟識見之貧也. 《緇門警訓·勉學·姑蘇景德寺雲法師務學十門 並序의 注》

《高僧傳》에 이르기를, “[불도를] 제창하여 [대중을] 인도하는 것에 있어서, 귀중한 바가 네 가지 있으니, 소리 내어 말하는 것이 아니면 곧 대중을 경책할 방법이 없으며, 재주 있는 것이 아니면 곧 時宜에 적절하게 대응할 방법이 없으며,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면 곧 괜찮은 말이 없으며, 널리 섭렵하지 않으면 곧 [말은] 근거하는 바가 없다.”라고 하였다. 《事鈔》에 이르기를, “널리 배우는 것이 빈곤을 구제하는 것이다.”고 하였으니, 식견이 부족한 것을 구제하는 것을 말한다.

상기 예문 ‘非聲則無以警衆, 非才則無以適時, 非辯則無言可’에서는 ‘以’를 조동사로 판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無以警衆’, ‘無以適時’, ‘無言可’ 등은 서로 짝을 이루고 있어서, ‘非辯則無言可’에서 ‘言’이 명사라면, ‘非聲則無以警衆’과 ‘非才則無以適時’에서 ‘以’도 반드시 명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예에서 ‘以’가 명사로 ‘無’의 목적어가 된다면, ‘以’의 뒤에 위치하는 ‘警衆’, ‘適時’ 등과 같은 動詞性詞組는 문장에서 어떤 성분이 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有無와 같이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의 목적어를 한정하는 말은 목적어의 뒤에 위치한다. 즉 ‘無以’나 ‘無言’의 뒤에 위치하는 ‘警衆’, ‘適時’, ‘可’ 등은, 각각 목적어 ‘以’, ‘以’, ‘言’을 뒤에서 꾸미는 한정어가 되는 것이다.

### 4. 名詞나 助動詞로 쓰이는 경우

아래에서는 명사 또는 조동사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보고자 한다.

子曰 不知命，無以爲君子也。不知禮，無以立也。不知言，無以知人也。《論語·堯曰》

공자가 “천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고, 예를 알 수 없으면 [사회에] 설 수 없으며, 언어[의 기교]를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 (... 군자가 될 방법이 없고, ... [사회에] 설 방법이 없으며, ... 다른 사람을 이해할 방법이 없다.)<sup>32)</sup>

위 예에서 ‘以’는 ‘...으로써(때문에)’라는 뜻의 개사로 보고, 그것의 뒤에 개사목적어가 생략된 것으로 판단하여, ‘[그것] 때문에’라고 해석한다면, “공자가 “천명을 알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군자가 되는 것이 없고, 예를 알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사회에] 서는 것이 없으며, 언어[의 기교]를 알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없다.”라고 해석해야한다. 그러나 의미가 원활하지 않고, 설령 그러한 해석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그 어순은 “子曰 不知命，以無爲君子也。不知禮，以無立也。不知言，以無知人也.”가 옳을 것이기 때문에, ‘以’를 동사 앞에 쓰이는 조동사로 판단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한다.

또한 ‘以’는 동사 ‘無’의 뒤에 나오는 명사로서 목적어로 쓰인다고 볼 수도 있다. 즉 有無의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가 목적어를 취할 때, 그 목적어를 한정하는 말은 그것의 뒤에 온다. 따라서 ‘無以爲君子也’, ‘無以立也’, ‘無以知人也’ 등에서 ‘以’는 ‘無’의 목적어이며, ‘以’를 꾸미는 말인 ‘爲君子’, ‘立’, ‘知人’ 등은 ‘以’의 뒤에 쓰여, ‘군자가 될 방법이 없고’, ‘[사회에] 설 방법이 없으며’, ‘다른 사람을 이해할 방법이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된다.

아래에서는 몇 가지 예를 더 나열한다.

① 陳亢問於伯魚曰 子亦有異聞乎. 對曰 未也. 嘗獨立，鯉趨而過庭. 曰 學詩乎. 對曰 未也. 不學詩，無以言. 鯉退而學詩. 《論語·季氏》

진향이 백어에게 물었다. “그대는 그래도 따로 들은 것이 있겠지요?” 대답했다. “아닙니다.” 일찍이 홀로 서 계실 때, 공[리]가 급하게 뜰을 지나가는데, “시를 배웠느냐?” 하고 말씀하시기에 “아닙니다.”하고 대답했더니, “시를 배우지 않으면 말을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물러나서 시를 배웠습니다. (... 말할

32) 앞의 해석은 조동사로 간주하여 해석한 것이고, 뒤의 ( )에 들어있는 해석은 명사로 간주하여 해석한 것이다. 아래에서는 모두 이와 같다.

방법이 없다. ...)

② 天下 莫柔弱於水，而攻堅強者 莫之能勝(先)，以其無以易之〔也〕. 《道德經·78章》

천하에 물보다 부드럽고 연약한 것은 없다. 그러나 단단하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데 물을 이길 것이 없으니,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 바꿀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③ 果能如吾自幼出家，爲僧行脚，親近眞善知識，以至出世住持，其正因行藏，如此行之，則吾不妄付授也。又何患宗門寂寥哉，至祝。無以表信，付拂子一枝，法衣一領。幸收之. 《緇門警訓·書狀·應庵華禪師答詮長老法嗣書》

만약 내가 어려서 출가하여 승려가 되어 行脚하고 참된 善知識을 가까이한 때부터, 出世하여(대중 앞에 발탁되어) 住持가 되기에 이르기까지, 그 正因의 行藏을 이처럼 행할 수 있었다면, 내가 망령되어〔長老의 소임을 맡아주도록〕 부탁하지 않았을 것이거나, 또한 어찌 宗門이 쓸쓸한 것을 근심하겠는가? 至極히 祝願하노라!〔달리〕 믿음을 표할 수 없어서, 拂子 한 가지와 法衣 한 벌을 붙이나니, 바라옵건대 받아 주소서. (... 표할 방법이 없어서, ...)

④ 萬古長江水，惡名洗不去. 謹謹納公帖<sup>33)</sup> 觀使<sup>34)</sup> 自收取，放我如猿鳥，雲山樂幽趣. 他年無以報，朝夕香一炷. 《緇門警訓·書狀·古鏡和尚回汾陽太守》

萬古의 長江 물로도 더럽혀진 이름은 씻어 낼 수 없느니라. 삼가고 삼가며 공문서를 되돌려 보내니, 觀使(汾陽侯)께서는 스스로 거두어들이시고, 저를 원숭이나 새처럼 놓아주어, 구름 낀 산 속(雲山)에서 그윽한 정취를 즐기게 하소서. 다른 해에 보답할 수 없으니, 아침저녁으로 한 심지의 향을 사르리라. (... 보답할 방법이 없으니, ...)

⑤ 永嘉云 無情 罔侵塵葉，有識 無惱蟪蛄，幽澗 未足比其清，飛雪 無以方其素. 不侵塵，謂不掘地，不侵葉，言不壞生. 《十誦》畫地作字，一頭時輕，兩頭時重 壞生可知. 《緇門警訓·願文·怡山然禪師發願文的注》

永嘉가 이르기를, “無情은 티끌이나 낙엽까지도 침범하지 않고, 有識은 초명벌레도 괴롭히지 않으며, 그윽한 산골의 물은 그 맑음에 비견할 수 있는 것이 없고, 흩날리는 눈은 그 흰 빛깔과 나란히 할 수가 없다.”고 하였는데, 티끌을 침범하지 않는다 함은, 땅을 파지 않음을 일컬으며, 낙엽도 침범하지 않는다 함은, 생명을 파괴하지 않음을 일컫는다. (... 나란히 할 방도가 없다. ...)

⑥ 夫爲天乎·地乎·陽乎·陰乎. 交相學而不怠，所以成萬物. 天不學柔則無以覆，地不學剛則無以載，陽不學陰則無以啓，陰不學陽則無以閉，聖人無他也，則天地陰陽而行者. 四者學不怠，聖人 惡乎怠. 《緇門警訓·勉學·孤山圓法師勉

33) 公帖는 公事에 觀한 帖子이다.

34) 觀使는 汾陽侯를 가리킨다.



學篇 並序·勉學上》

무릇 하늘과 땅과 양과 음이 됨이여! 교차하여 서로를 배우는데 게으르지 않으니, 그러므로 만물이 이루어지나니, 하늘이 부드러움을 배우지 않으면 곧 덮을 수가 없고, 땅이 굳셈을 배우지 않으면 곧 실을 수가 없고, 양이 음을 배우지 않으면 곧 열 수가 없고, 음이 양을 배우지 않으면 곧 닫을 수가 없으니, 성인도 다름이 없는지라, 天地陰陽을 본받아 행하는 者이시니, 네 가지(天地陰陽)가 배우는 것이 게으르지 않거늘, 성인이 어떻게 게을리 하리요. (... 곧 덮을 방도가 없고, ... 곧 실을 방도가 없고, ... 곧 열 방도가 없고, ... 곧 닫을 방도가 없으니, ...)

⑦ 不修學 無以成. ... 不折我 無以學. ... 不擇師 無以法. ... 不習誦 無以記. ... 不工書 無以傳. ... 不學詩 無以言. ... 不博覽 無以據. ... 不歷事 無以識. ... 不求友 無以成. ... 不觀心 無以通. 《緇門警訓·勉學·姑蘇景德寺雲法師務學十門 並序》

[戒·定·慧] 三學을 닦지 않으면, [菩提를] 이룰 수가 없느니라. ... 나를 굽히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느니라. ... 스승을 가리지 않으면 본받을 수가 없느니라. ... 익히고 소리 내어 읽지 않으면 기억할 수가 없느니라. ... 글 쓰는 법을 공부하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느니라. ... 詩를 배우지 않으면 말을 잘 할 수가 없느니라. ... 널리 살펴보지 않으면 근거할 수가 없느니라. ... 일을 겪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느니라. ... 벗을 구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느니라. ... 마음을 관조하지 못하면 통할 수가 없느니라. (... 나를 굽히지 않으면 배울 방법이 없느니라. ... 스승을 가리지 않으면 본받을 방법이 없느니라. ... 익히고 소리 내어 읽지 않으면 기억할 방법이 없느니라. ... 글 쓰는 법을 공부하지 않으면 전할 방법이 없느니라. ... 詩를 배우지 않으면 말을 잘 할 방법이 없느니라. ... 널리 살펴보지 않으면 근거할 방법이 없느니라. ... 일을 겪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느니라. ... 벗을 구하지 않으면, 이룰 방법이 없느니라. ... 마음을 관조하지 못하면 통할 방법이 없느니라.)

⑧ 不修戒定慧三學, 無以成菩提, 戒定慧三, 通言學者, 所以疏神達思, 怡情怡性, 聖人之上務也. 學猶飾也, 器不飾則無以爲美觀, 人不學則無以有懿德. 《緇門警訓·勉學·姑蘇景德寺雲法師務學十門 並序의 注》

戒·定·慧 三學을 닦지 않으면 菩提를 이룰 수가 없나니, 戒·定·慧 세 가지를 통틀어 學이라 말한 것은, 정신을 소탈하게 하고 생각을 활달하게 하며, 감정과 성품을 기쁘게 하기 때문이므로, 성인이 가장 힘쓰는 것이다. 學은 장식하는 것과도 같으니, 그릇은 장식하지 않으면 곧 아름답게 여길 수가 없으며,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곧 훌륭한 덕이 있을 수 없다. (... 菩提를 이룰 방도가 없나니, ... 곧 아름답게 여길 까닭이 없으며, ... 훌륭한 덕이 있을 까닭이 없다.)

⑨ 《三藏法數 九》, 如來立教, 其法有三. 一曰戒律, 二曰禪定, 三曰智慧. 然非戒無以生定, 非定無以生慧, 三法相資, 不可缺. 《緇門警訓·勉學·姑蘇景德

寺雲法師務學十門 並序의 注》

《三藏法數 九》에서 “如來가 가르침을 세우는데, 그 法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戒律이요, 둘째는 禪定이며, 셋째는 智慧이다. 그러나 戒가 아니면 定이 생길 수가 없고, 定이 아니면 智혜가 생길 수가 없다. [이와 같이] 三法은 서로를 의지하여, [조금도] 이지러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 (... 定이 생길 까닭이 없고, ... 智혜가 생길 까닭이 없다. ... )

⑩ 天之所賦曰命, 《書》曰 不知命, 無以爲君子. 《緇門警訓·勉學·徐學老勸童行勤學文의 注》

하늘이 부여한 바를 命이라 하니, 《書經》에 이르기를, “命을 알지 못하면 군자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 군자라고 할 방도가 없다....)

위의 예들은 ‘以’가 조동사라고 할 수도 있고, 명사라고 할 수 있는 경우이다.

그런데 조동사로 쓰이는 경우는 한 가지 고려할 문제가 있다. 즉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에는, 대표적인 것으로 ‘可’와 ‘能’을 들 수 있는데, 두 글자의 쓰임은 결코 같지 않다고 할 것이다.

아래의 문장을 통하여 두 가지 용법의 차이를 검토해보겠다.

道可道, 非常道. 名可名, 非常名. 《道德經·第1章》

도는 도라고 말할 수 있으면 불변하는 영원한 도가 아니요, 이름은 이름지울 수 있으면 불변하는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

위의 예문에서 ‘可’는 그것의 뒤에서 동사로 쓰이는 ‘道’와 ‘名’의 앞에서 ‘...할 수 있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조동사이다. 그러나 똑 같이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 ‘能’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可’는 주어 ‘可’의 뒤에 나오는 동사의 客體이지만, ‘能’은 주어 ‘能’의 뒤에 나오는 동사의 主體이기 때문이다. 즉 상기의 예문에서 주어 ‘道’와 ‘名’은 각각 ‘도라고 말할 수 있는 대상’이거나, ‘이름지울 수 있는 대상’이지, ‘道’와 ‘名’이 각각 ‘도라고 말하는 주체’이거나 ‘이름지울 수 있는 주체’는 아니다. 따라서 ‘以’가 조동사가 된다면, 문장의 주어 동사의 주체가 되는 것인지 객체가 되는 것인지 확인하여야 하지만, 아직 그 예가 많지 않아 그 용법을 확실하게 비교하여 판단할 수가 없어서, 本考에서는 그 판단을 유보한다.

사실 상기의 예는 많은 경우 ‘無以<sup>35)</sup>’라는 형태이다.

혹자는 ‘無以’를 “無以復加(더는 늘릴 수 없다.)”, “無以名之(뭐라고 이름 붙여야 좋을지 모르겠다.)”, “無以自解(스스로 자신을 달랠 수 없다.)” 등에서와 같이, ‘…할 수가 없다’, ‘…할 도리(방도)가 없다’라는 의미의 複音節詞<sup>36)</sup>라고 하지만, 나누어 분석해보면, ‘…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라고 할 때는 ‘以’가 조동사가 되는 경우이고, ‘…할 도리가 없다’라는 의미라고 할 때는 ‘以’가 명사가 되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sup>37)</sup>

## 5. 介詞로 쓰이는 경우

介詞는 상용되는 용법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다만 명사의 용법과 혼동되는 경우만을 기술하고자 한다.

아래에서는 ‘有以’의 형태를 취하여, 동사[有] 뒤에 ‘以’가 있어서, 마치 ‘以’가 동사 ‘有’의 목적어인 것 같이 생각되지만, ‘以’의 뒤에 나오는 말이 명사나 名詞性詞組이기 때문에, 명사가 될 수 없고 개사로 판단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① 問於智首言 於佛法中 智爲上首 如來何故 或讚布施 或讚持戒 或讚堪忍 以至或復讚歎慈悲喜捨 終無有以一法 而得出離者 咸有頌答 是師之朝夕所讀者也 斯理 必深明之. 《緇門警訓·書狀·顏侍郎答雲行人書》

智首菩薩에게 묻되, “부처님 법 가운데 지혜가 우두머리(최고)이거늘, 여래는 어떤 까닭으로, 혹은 布施를 찬탄하며, 혹은 持戒를 찬탄하며, 혹은 堪耐를 찬탄하며, 혹은 慈·悲·喜·捨를 거듭 讚歎하기까지 하여, 결국에는 하나의 법으로 써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없는가?”라고 하여, 모두 偈頌으로 답한 것이 있으니, 이는 스님께서 아침저녁으로 읽은 것이라, 이 이치에 대해서는 반드시 매우 밝으시

35) 無以는 毋以, 亡以, 蔑以, 莫以, 無用 등으로 쓰기도 하는데, ‘無’와 ‘毋, 亡, 蔑, 莫’ 등은 모두 聲母가 /m-/인 것을 볼 수 있다.

36) <http://dic.daum.net/word/view.do?wordid=ckw000129952&q=%E7%84%A1%E4%BB%A5> (검색일자: 2014년 5월 12일)

37) 사실 或者는 ‘有以’도 ① ‘…할 방법이 있다’와 ② ‘…할 수가 있다’ 등으로 해석하지만, 앞에서의 설명과 같이, 조동사를 ‘無’ 등을 써서 부정할 수는 있으나, ‘有’를 써서 긍정하지는 않는다.

\* <http://dic.daum.net/word/view.do?wordid=ckw000151952&q=%E6%9C%89%E4%BB%> (검색일자: 2014년 5월 12일)

리라.

② 有以宮娃爲模特塑造菩薩形象的現象.

궁녀를 모델로 삼아 보살의 모습을 형상화하는 현상이 있다.

①은 '以'의 뒤에 명사 '一法'을 목적어로 삼는 개사라고 할 수 있다.

②에서 '有'의 목적어는 '現象'이며, '現象'을 꾸미는 '以宮娃爲模特塑造菩薩形象的'은 '現象'의 한정어가 된다. 따라서 "궁녀[宮娃]를 가지고[以] 모델[模特]로 삼아[爲]菩薩形象을 형상화하는[塑造]現象이 있다[有]"라고 해석되며, '以'는 마땅히 개사가 된다.

### Ⅲ. 결론

한자는 본래 뜻글자로서, 어떤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만들어진 글자이기 때문에 본義는 반드시 實詞이다.

본고에서 살펴본 '以'도 오늘날에는 문장에서 주로 개사로 사용되지만, 이것 역시 본의는 쟁기를 가지고 하는 행위와 관련된 실사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논의를 위해서 한자의 語彙的意味를 고려하여 품사를 결정하여 기술하지만, 한자는 품사가 하나로 고정된 것은 아니다. 즉 문장 내에서 사용되는 위치에 따라서 그것의 품사가 바뀌는 것이며, 이것을 우리는 품사의 轉成이라고 한다.

이러한 방식에 따라 '以'의 품사를 살펴본 결과, 아래의 몇 가지 환경에서 명사나 조동사로 사용될 수 있다.

첫째, '以'가 조동사로 사용되는 경우는 반드시 뒤에 동사가 출현하여야 하며, 부정할 때는 '無' 등의 否定副詞를 사용하지만, 긍정할 때는 단독으로 사용된다.

둘째, 명사로 사용되는 경우는 그것의 앞에 주로 동사 '有'나 '無'가 출현하며, 명사로 사용되는 '以'는 주로 '有無'의 목적어가 된다. 따라서 有無의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의 목적어를 꾸미는 말은 목적어의 뒤에 위치하기 때문에, '以'를 꾸미는 한정어는 그것의 뒤에 위치한다.

또한 '以'가 有無의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의 목적어가 아닐 때는, '以'가 단독으로

앞에 쓰인 동사의 목적어가 되든지, 심지어는 그것의 앞에 ‘其’와 같은 한정어가 나타나기도 한다.

우리는 이런 논의를 통하여 문장을 해석할 때는 각각 단어가 문장에서 어떤 성분이 되는가를 살펴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參考文獻】

《緇門警訓·勉學》

《禪源諸詮集都序》

《禪要》

《佛祖直指心體要節·惠安 國師》

《論語·季氏/顏淵》

《孟子·萬章上》

《荀子·成相/議兵》

《墨子·公輸》

《世說新語》

《廣文者傳》

《道德經·一章》

《莊子·逍遙遊/雜篇·讓王》

《史記·楚世家/項羽本紀》

《戰國策·魏策三》

高大民族文化研究所 中國語大辭典編纂室, 《中漢辭典》(서울: 高大民族文化研究所, 1989년)

段玉裁 注, 許慎 撰, 《說文解字注》(臺北: 東良印刷公司, 民國87)

高樹藩, 《正中形音義綜合大字典》(臺北: 正中書局, 1981)

古文字詁林編纂委員會, 《古文字詁林》(上海: 上海教育出版社, 1999년 12월)

王朝忠 編著, 《漢字形義演釋字典》(成都市: 四川辭書出版社, 2006년 11월)

谷衍奎, 《漢字源流字典》(北京: 語文出版社, 2008년 1월)

湯可敬 撰, 《說文解字今釋(上·下)》(長沙: 岳麓書社, 2005년 10월)

李敦柱, 《漢字學總論》(서울: 博英社, 1981년)

成百曉 譯註, 《懸吐完譯 論語集註》(서울: 전통문화연구소, 1991년)

안재철, 《緇門警訓》의 문법적 이해 (서울: 하늘북, 2004년)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wonpa5&logNo=10184747197>  
<http://dic.daum.net/word/view.do?wordid=ckw000151952&q=%E6%9C%89%E4%BB%A5>

안재철, 〈漢文原典 번역오류 사례분석-‘何以A爲’형에서 ‘A’와 ‘爲’의 品詞轉成을 중심으로-〉, 《中國語文論譯叢刊》 제35집 (서울: 숭실대학교, 2014)

### 【中文提要】

#### ‘以’의 几种用法考察

要想正确地注解漢語, 應該了解一个單詞是在文章中哪个位置使用的。

本文對最常見的介詞“以”在什么环境下作爲名詞或助動詞來使用進行研究, 并得出了以下結論。

首先, “以”作助動詞使用時, 后面必須有動詞, 在否定句中前面用“无”等否定副詞, 但在肯定句中可以單獨使用。

其次, “以”用作名詞時, 前面主要用動詞“有”或者否定副詞“无”, “以”作爲“有无”的賓語使用。另外, 因修飾“有无”后賓語的成分放在賓語后使用, 故“以”的限定成分是位于其后的。

### 【主題語】

이, 무, 품사전환, 본의, 문장성분

以, 無, 品詞轉成, 本義, 文章成分

以(yi), 無(wu), 以(yi), 品詞轉成(transformation of word class), 本義(the original meaning), 文章成分(the constituent of sentence)

투고일: 2015. 4. 15 / 심사일: 2015. 4. 20~5. 5 / 게재확정일: 2015. 5. 10